

H · I · F · I · & · H · O · M · E · T · H · E · A · T · E · R

AUDIO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2011년도 우수콘텐츠잡지

Special

200만원-1000만원 베스트 인티앰프 집중 시청 Part.1

2011 **10**
Monthly Magazine



Cover Story
Eximus DP1

Focus
Unison Research S9
JBL S4600
Playback Designs MPD-3

EXIMUS

www.audioht.co.kr
www.월간오디오.com



에이프릴뮤직의 DP1은 그 이름처럼 우리에게 봄날을 선물한다. 계절의 시작이며 생명이 태동하는 봄날의 느낌이다. DP1으로 재생하는 음악이 늘 우리의 지친 삶을 위로하고 생명의 태동이 시작되는 봄의 느낌을 늘 우리에게 전해줄길 바란다. 에이프릴 뮤직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은 감히 희망이라 말하고 싶다. _글 이정재



제조원 : 에이프릴 뮤직 (02)3446-5561
· 가격 : 295만원 · 디지털 입력 : USB2.0×1, I2S×1, AES/EBU×1, Coax×2, Opt×1 · 아날로그 출력 : RCA×1, XLR×1, 헤드폰×1 · 출력 레벨 : 3V · 출력 임피던스 : 75Ω · 크기 (WHD) : 20.8×6.2×29.1cm · 무게 : 3.6kg

모든 것을 압도하는 최고의 DAC 탄생

Eximus DP1

에이프릴뮤직, 한국 오디오계를 이야기할 때 반드시 거론되는 대표적인 이름. 에이프릴뮤직을 처음 만나게 된 것은 한참을 거슬러 올라간다. 인터넷이란 이름보단 PC 통신이라는 이름이 더 대중적이고, 전화선 모뎀으로 통신이 이루어지던 시절, 56K 모뎀이 빠르다고 이야기하던 시절, 대표적인 하이파이 커뮤니티가 PC 통신 하이파이넷에서 이루어지던 그대에 현재의 대표인 이광일 사장이 에이프릴뮤직이라는 오디오숍을 오픈한 것이 에이프릴뮤직의 시작이었다. 숭에 찾아갔을 때 가난한 대학생들 위해 당시에 가격 대 성능비가 좋았던 스피커인 NHT의 슈퍼 원을 추천해주며, 여러 앰프와 매칭해주던 사장님과 도란도란 이야기했던 기억이 난다. 그때 들었던 데이브 브루백의 타임아웃 앨범까지도... 오디오숍으로 시작한 에이프릴뮤직은 오디오 제작사로서 발돋움을 했고, 한국 오디오계의 역사를 새롭게 쓰며 많은 제품들로 해외에서까지 인정을 받는 오디오 기업으로 성장했다.

지금의 에이프릴은 이제 더 이상의 설명이 크게 필요하지 않다. 국내에서도 유명하지만 해외에서는 더욱 유명한 에이프릴이니까. 이 이름이 유명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와 얼마나 많은 연구, 그리고 얼마나 많은 튜닝의 시간을 보냈을까. 또한 얼마나 많은 위기와 시련을 겪었을까 생각해 보면 한 오디오 메이커가 성장하는 과정이 성공한 사람의 인생과 별반 다를 것이 없을 것이란 생각을 해보게 된다.

이런 에이프릴 뮤직에서 마치 어릴 적부터 좋은 가문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소위 말하는 엘리트 코스를 밟은 명문가 자녀 같은 D/A 컨버터가 나왔다. 명문가의 자녀로서

오랜 기간 교육받고 훈련받으며 처음으로 세상에 소개되는 DP1. DP1을 미리 들어본 해외 오디오 사이트의 리뷰어들은 하나같이 놀라고, 지금까지 DAC의 명가라 일컬어지던 오디오 명기라는 회사들의 DAC와 비교하며 더욱 좋다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러한 기기를 리뷰를 통해 만나보게 되는 것은 참으로 기쁜 일이다.

깔끔한 포장을 열면 3단으로 이루어진 구성을 볼 수 있다. 드라이버 CD와 USB 케이블, 매뉴얼, 기기와 전원코드까지. 기기의 비닐 포장을 벗기면 아름다운 가공의 기기 윗면을 볼 수 있다. 한눈에 4월(April)의 모습을 느낄 수 있다. 마치 흐트러지는 벚꽃을 보는 듯한 느낌이다. 옆면으로 발열에 대비한 도트 모양의 홀 가공이 되어 있는데, 배열이 아름답다. 캘리포니아 A-Rex 디자인의 알렉스 라스무센이 디자인을 담당했다고 한다. 이 회사는 에어, VTL, 플레이백 시스템즈, 컨스텔레이션 등의 디자인을 담당했다

일단 스펙상의 모습에서 한국의 유저들이 가장 좋아할 만한 구성이 잔뜩 담겨져 있다. 기기가 설득력이 있다는 이야기다. 다양한 디지털 입력(Coax×2, AES/EBU×1, OPT×1, FS×1), 거의 모든 종류의 CD 트랜스포트와 연결이 가능하고, DDC, TV(PCM 출력)까지 연결이 가능하다. PC·MAC 모두에 대응하고 있으며 윈도우용 드라이버는 제공된다. 현존하는 USB 칩셋 중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XMOS 사의 X-Core 32비트/500MIPS 마이크로프로세서가 사용되었고, USB 2.0을 지원하며 24비트/192kHz까지 전송이 가능하다.

아날로그단·출력단에 볼륨만 달려 있는 무늬만의 프리가 아니라, 디지털부와 분리된 제대로 된 프리가 있다. 에이프릴의 최상급 라인인 엑시무스의 프리를 하나 갖는 것과 같다. 볼륨 역시 조작 느낌이 상당히 우수하다. 또한 아날로그 입력단이 RCA 1조, 미니 기기용(아이팟 등) 3.5mm 입력이 1조 있어 여러 모로 확장성을 가진다. 완전 격리된 헤드폰 드라이브 모듈이 탑재되어 있고, 임피던스에 관계없이 모든 헤드폰을 구동할 수 있다.

이쯤 되면 그야말로 팔방미인이다. 혹자는 이 많은 기능을 다 쓰겠냐고 하지만, 안 되서 못 쓰는 것과 되는데 안 쓰는 것의 차이는 정말 크다. 또한 DP1은 디지털 소스에 업샘플링을 지원한다. 디지털 컨버터부엔 TI PCM1794가 듀얼 모노 방식으로 포진되어 있고, 44.1 소스는 88.2나 176.4로, 48 소스는 96이나 192로 정배수 업샘플링을 한다. 업샘플링은 TI SRC4192 샘플레이트 컨버터 칩셋에 의해 하드웨어적으로 동작하며 동작 여부는 램프의 색깔로 표현된다. 물론 바이패스도 지원한다.

DP1을 이야기할 때 다이내믹 레인지 이야기



를 빼놓을 수 없다. 다이내믹 레인지가 무려 132dB이다. 295만원의 가격에 132dB 스펙은 정말 놀라울 지경이다. 왜 다이내믹 레인지가 중요할까? 사진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금방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인데, 계조 표현력이 좋아지는 것과 같다. 사진을 예를 들어 쉽게 말하면 백색부터 검정까지 132개의 단계의 표현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음악으로 표현한다면, 피아니시모부터 포르티시모까지의 단계를 세분화한다고 볼 수 있다. 계다가 왜율이 0.0004%. 이 정도 스펙은 거의 스위스 솔루션 앰프의 스펙이다. 스펙만 보고는 이것이 제대로 측정된 것인가 할 정도로 훌륭한 스펙이다. 여기에 음악성만 따라가 준다면 무엇이 부러울까?

하루정도 전기를 먹이고 기다린 후 소스기로 사용하는 맥 미니에 연결했다. XMOS USB DAC로 바로 인식한다. 맥 미니와 퓨어 뮤직 플레이어, 그리고 아마라 2.2 통해 청취했다. 16/44.1 음원을 24/88.2와 24/176.4로 업샘플링한 것, 순수 24/176.4 음원 파일, 이렇게 샘플레이트 별로 비교했다.

- 16/44.1 음원 : <Die Stereo Horest, Vol.6> 중 차이코프스키의 마제파
- 24/176.4 음원 : HRX 음반인 <Exotic Dances From The Opera> 중 차이코프스키의 마제파

동일곡으로 업샘플링 성능과 고해상도 파일 재생 능력을 비교해 보았다. HRX 음원을 기준으로 했다.

44.1 무대의 스케일이 조금 작아진다. 리버브의 잔향도 HRX 음원에서 더 약간 일찍 사그라지는 느낌이다. 전체적으로 입자감이 거칠어진다. 도입부의 섬세함과 투티 부분의 느낌이 HRX 음원 같은 드라마틱한 표현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그러나 이것은 HRX 음원 같은 고음질 파일과 비교해서 느껴지는 것이지 사실상 단독으로 일반적인 CD 음질과 비교할 때 너무나 훌륭하다.

88.2 배수 업샘플링을 통해 88.2로 재생했다. 고음부가 44.1 때보다 화사하게 살아나고 해상력의 우위라기보다 표현의 정교함이라고 말하고 싶다. 포커스가 더 정확해지고 중역의 밀도감이 살짝 증가한다. 멍치게 들렸던 저역의 윤곽이 살아난다.



176.4 또 한 번의 업샘플링을 통해 176.4까지 끌어올렸다. 도입부 초기에 경쾌한 공기감이 HRX 음원과 비슷한 느낌이다. 거칠게 느꼈던 입자감도 매우 촘촘한 느낌으로 바뀐다. 투티에서의 임팩트도 많이 살아난다. 투티에서의 임팩트는 오디오 재생에서도 악기의 배열이 흔들리지 않고 한꺼번에 덩어리로 다가와야 진정한 희열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 이러한 재생음은 고해상도 파일에서 느끼던 것이다. 업샘플링 능력이 상당한 것을 알 수 있다. 특별히 조금 거칠게 재생해야 더욱 맛을 느낄 수 있는 장르가 아니라면 업샘플링을 거의 사용하지 않게 될 것 같다.

일주일가량 DP1을 들으면서 느낀 것은 에이프릴이라는 회사가 한국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한국 오디오파일에게 행복한 일인가였다. 이 정도 음악성과 스펙을 지닌 DAC를 외국 회사에서 한국으로 가져온다면 한국 오디오파일들은 적어도 두서너 배 이상 값을 지불해야 했을 것이다. 특히 일반 CD를 리핑하여 업샘플링으로 음악을 들을 때 주는 묘미는 DP1이 주는 또 하나의 선물이다. 소프트웨어적 업샘플링으로 단순히 파일의 크기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하드웨어적 업샘플링을 통해 2% 부족했던 음악성을 채울 수 있다. 에이프릴뮤직의 DP1은 그 이름처럼 우리에게 봄날을 선물한다. 계절의 시작이며 생명이 태동하는 봄날의 느낌이다. DP1으로 재생하는 음악이 늘 우리의 지친 삶을 위로하고 생명의 태동이 시작되는 봄의 느낌을 늘 우리에게 전해주길 바란다. 에이프릴뮤직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은 감히 희망이라 말하고 싶다. **A**

